

LÉVY GORVY

레비고비 포커스 시리즈
아그네스 마틴 '환희의 초상 'Portrait of Joy' 개최

FOCUS: Agnes Martin
포커스: 아그네스 마틴

2019 년 2 월 22 일 - 4 월 13 일

레비고비 런던
22 Old Bond Street
London W1S 4PY

오프닝 리셉션: 2019 년 2 월 21 일 목요일 6-8PM



아그네스 마틴 <가브리엘>(1976), 영상 스틸 제작 Bill Jacobson. © Agnes Martin / DACS 2019. Pace Gallery 제공.

런던-레비고비 갤러리는 아그네스 마틴의 유일한 영상작업인 <가브리엘 Gabriel>(1976)과 작가의 추상회화를 함께 선보이는 전시 <포커스: 아그네스 마틴>을 개최한다. 22 Old Bond Street 에 위치한 런던 갤러리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는 스크리닝 룸과 회화전시실로 이루어진 명상적이고 몰입도 높은 전시공간을 바탕으로 마틴의 작품세계와 작가가 고민했던 환희의 개념을 조명한다. 작품에 대해 마틴은 “이 영상은 행복에 대한 작업이 되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완성된 후에 보니 작품은 환희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나의 회화 작업과 마찬가지로 말이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번 전시는 레비고비 전시 작가들의 주요 작업을 지속적으로 탐색하고 소개하기 위해 기획된 <포커스 시리즈>의 두 번째 전시이다.

순수의 시선

컬러영상으로 각본 없이 촬영된 <가브리엘>은 제목과 동일한 이름의 14 세 소년이 미국 뉴멕시코, 캘리포니아, 콜로라도의 광활한 자연을 거니는 모습을 포착한다. 제작 당시 아그네스 마틴 역시 뉴멕시코에 거주하며 작업하던 시기였다. 선형적 스토리 라인을 거부하는 마틴의 작업은 바람에 휘날리는 야생화와 설 새 없이 흐르는 개울물의 모습을 클로즈업으로 교차하며 파편적인 자연풍경에 담긴 환희의 초상을 제시한다. 영상 초반에 소년은 카메라를 등진 채 드넓은 바다 풍경을 감상하고 있다. 마치 마틴이 표현한 ‘혼란’으로부터 멀리 등지고 있는 듯한 소년의 모습은 작품 말미에 다시 등장하며 끝을 알 수 없는 자연의 광활함과 환희의 경험을 순환적으로 보여준다. 작가의 친구였던 빌 카츠(Bill Katz)의 도움으로 낡은 35mm 카메라를 사용해 촬영한 <가브리엘>은 상업영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폭력과 파괴와는 반대로 소년과 자연의 화합을 통한 행복과 기쁨의 감정을 조명한다. 작품에서 작가는 예술영화를 해체하기보다는 특정한 감정 상태를 전달하는 데 집중한다. 마틴이 선택한 주인공인 소년 또한 그를 둘러싼 아름다운 자연과 조우하는 순수하고 때 묻지 않은 경험을 표현하기 위한 작가의 의도를 반영한다. 마틴은 생전 자녀가 없었지만, 아이들의 ‘순진한 마음’과 세상에 대한 열린 태도에 대해 자주 언급하곤 했다. 작가가 추구한 이 같은 정제되지 않은 순수함의 감정은 그의 모든 추상화는 물론 <가브리엘> 속 풍경 곳곳에 깃들어 있다.

온전한 환희

이번 전시는 <가브리엘>이 표현하고자 한 온전한 환희의 감정과 1960년대 중후반 마틴이 제작한 기하학적 추상화에 담긴 승고한 평온함의 평행선을 조명한다. 마틴은 영상을 제작할 당시 무거운 카메라 장비를 드는 데에는 전혀 어려움이 없었지만, 야생화를 가까이서 촬영하는 순간에는 손이 떨리고 “아름다운 꽃들로부터 환희의 진율”을 느꼈다고 회고했다. 바람과 물소리와 함께 배경에 흐르는 J.S.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은 작품에 담긴 이 같은 섬세하고 애뜻한 순간들을 더욱 극적으로 만든다. 마틴이 “사람들은 음악작품에서는 순수한 감정을 허락하지만, 미술작품에서는 설명을 요구한다.”라고 언급했듯이 <가브리엘>은 음악이 자극하는 극적인 감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도 이미지를 전면에 내세워 이미지가 가진 강력한 시각적 힘을 강조한다. 마틴의 회화작품과 영상, 그리고 영상 속 배경음악을 함께 병치함으로써 이번 전시는 마틴의 회화 작업을 새로운 맥락에서 재조명하고 그의 회화작품에 담긴 감정적 힘을 재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포커스: 아그네스 마틴>은 환희의 감정에 몰입뿐만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이고 감각적인 전시 경험을 통해 매체에 상관없이 마틴의 모든 작품이 담고 있는 깊은 평온함을 관객들에게 전달하고자 한다.

레비고비 (Lévy Gorvy)

도미니크 레비(Dominique Lévy)와 브렛 고비(Brett Gorvy)에 의해 설립된 레비고비 갤러리는 근현대와 동시대 미술을 중심으로 최고의 전문성과 혁신을 기반으로 한 전시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현재 뉴욕 메디슨가 909번지, 런던 메이페어에 위치한 전시공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 설립한 상하이 사무소에 이어 2019년 3월 센트럴 홍콩에 세 번째 전시공간을 개관할 예정이다. 생존 작가는 물론 작가재단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한 다채로운 전시 프로그램과 다양한 예술 장르 간의 폭넓은 교류를 시도하는 레비고비는 미술사 관련 연구와 학술 활동, 도록 및 전시 관련 서적 출간 또한 활발히 지원하고 있다.

909 Madison Avenue, New York, NY 10021, +1 212 772 2004
22 Old Bond Street, London W1S 4PY, +44 (0) 203 696 5910
Ground Floor, 2 Ice House Street, Central, Hong Kong
www.levygorvy.com | @levygorvy

홍보 담당자

Marta de Movellan, Director of Communications, marta@levygorvy.com

Sam Talbot, sam@sam-talbot.com